

“덕분에 한숨 돌렸죠”... 적극 지원에 지역경제 ‘활력’

광주시 민생살리기 추진 한 달
전통시장·골목상권 손님 늘어
“상생카드 할인 확대 지갑 열려”
착한 선결제·특례보증 확대 도움
“어려운 시기 가뭄 속 단비” 환영

“요즘 손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상생카드로 결제되느냐’는 거여. 할인이 확대되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전보다 지갑을 잘 열더라고. 이런 지원이라도 없었으면 올 겨울 정말 힘들 뻔했제.”

광주시가 민생 경제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한 ‘착한 소비 캠페인’, ‘상생카드 할인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 확대’ 등의 시책이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얼어붙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으로 경영난이 완화되는 등 침체된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찾은 광주 양동시장. 외투를 단단히 여미게 되는 강추위에도 시장은 손님들의 발길로 북적이며 활기를 띠고 있었다. 상인들은 점포 앞으로 나와 “국물용 멸치 보고 가세요. 상생카드 됩니다”, “신선한 제철 해산물 판매합니다”며 호객에 열을 올렸다. 점포 곳곳에는 ‘환영 상생카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광주상생카드 사용가능 점포’ 등 문구가 붙어있

어 시선을 끌었다.

상인들은 비상계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여파로 악화된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된 것은 “상생카드 할인 확대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광주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이 소비심리를 되살리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양동시장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모(67)씨는 “할인이 확대되기 전에는 10명 중 2-3명만 상생카드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7명 정도는 상생카드를 들고 오는 것 같다”며 “할인이 확대되면서 시장에 한 번 올 것을 두 번 받길습하니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고물가·경기침체 장기화에 소비자들이 의류 지출을 가장 먼저 줄이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옷가게 상인 하효정(61)씨도 상생카드 할인 확대 효과를 체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경기에 정국불안까지 겹치면서 의류 매장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상생카드 할인이 확대되면서 전보다 옷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설 명절을 제외한 1~2월은 시장의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10% 할인을 받아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 소비심리가 조금이나마 살아난 것 같다. 지역민들이 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할인 기간과 상생카드 사용가능 점포를 더 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얼음바위 주말인 지난 22일 무등산국립공원을 찾은 등산객들이 연일 매서운 한파속에 얼어붙은 얼음바위 빙벽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며 겨울 산행을 만끽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같은 날 찾은 골목상권의 상인들도 상생카드 할인 확대 덕분에 고객 유입이 늘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구 치평동 한 상가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는 강선명(45)씨는 “상생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사용처인 걸 알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어, 할인 확대가 손님 유입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다. 대형마트에서는 상생카드를 쓸 수 없어서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소비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 덕분에 가게 운

영 비용 부담을 덜었다는 상인도 만나볼 수 있었다. 식육식당을 운영 중인 지속자(68)씨는 선결제 명단이 적힌 장부를 가리키며 “지난달 선결제 된 금액을 가게 운영 자금으로 요긴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에만 일반 회사 세 곳에서 20~30만원어치를 선결제를 했고, 서구에서 진행한 ‘착한소비 선결제’ 릴레이를 통해서도 10만원을 선결제 받았다”며 “선결제는 예약을 확정 짓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가게 운영 자금을 미리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또 선결제

덕분에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나중에 지인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광주시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 확대’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숨 쉴 틈을 마련했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역대 최대인 17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3면에 계속 ▶관련기사 2·3면 박소영·나다운 기자

전남도, 전남 국립의대 설립 막판 ‘총력전’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오는 3월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남도가 국회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여는 등 막판 총력에 나섰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국립의과

대학 신설에 대한 국회대토론회 및 범도민결의대회가 24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김원이(목포),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실이 공동 주관하고, 목포대와

순천대학교, 국회 좋은정책포럼(대표 전현희 국회의원),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눠 진행되며, 사회는 김한창(사)좋은정책포럼 사무총장이 맡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내달 확정
오늘 국회대토론회·범도민결의대회

1부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

다. 토론에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공공의료 전문가, 범도민추진위원회 및 지자체 관계자, 양 대학 및 지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의 당위성과 설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도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통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투표하는
당신의 발걸음,
새마을금고의
든든한 밑거름

소중만권리 공정

투표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MG 새마을금고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일
2025. 3. 5.(수)

투표시간
직접 선출 : 오전 7시 ~ 오후 5시
총회·대의원회 선출 :
금고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 ~ 오후 5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선거관리위원회

www.info.nec.go.kr